



선동열 감독

## Ⓚ KIA 스프링캠프 마감 'SUN의 고민'

# 타격 걱정? 진짜 문제는 마운드

**연습경기 6승4패 기록  
투수 줄부상에 어려움  
17일 SK와 시범경기**

호랑이군단이 59일간의 스프링캠프 대장점을 마쳤다.

KIA 타이거즈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13일 오후 한국에 돌아왔다. 지난 1월15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한 선수단은 2월18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 총 59일간의 전지훈련을 소화했다.

미국에서 체력 및 기술훈련에 주력했던 선수단은 일본에서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다듬었다.

KIA의 새 사령탑 선동열 감독은 오키나와에서 일본·한국팀들과 12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시즌 윤곽을 그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KIA는 빅 매치로 꼽혔던 삼성과의

연습경기와 최종적인 마운드 점검을 준비했던 9일 한화와의 오키나와 리그 최종전이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10경기를 소화, 6승4패를 기록했다.

타격의 하락세 속에 한화에게 노히트노런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진짜 고민은 타선이 아닌 마운드다.

선동열 감독은 "타자들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 강도 높게 체력 훈련이 진행됐기 때문에 힘이 들 수 밖에 없다. 연습경기 라인업에서 변화될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서 타선의 구성은 마무리 단계임을 밝혔다.

문제는 부상병이 즐비한 마운드의 자리배치다.

선 감독은 "전지훈련 막바지에는 선발과 마무리 다 정해져야 하는데 부상 때문에 마운드 틀을 정하지 못했다"고 마운드 구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발후보였던 양현종에 이어 손영민이 부상상으로 이탈했고, 마무리 후보 김진우도 중도에 짐을 졌다. 불펜 필승조 한기주·심동섭

도 부상을 호소하면서 선 감독의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부상병의 복귀는 반갑다.

지난 시즌 도중 어깨 연골 접합 수술을 받았던 안방만 김상훈이 재활조에서 풀업을 하면서 시즌 출발 '이상무'다. 김상훈과 차일복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안정된 배터리 구성이 가능해졌다.

연습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한기주·심동섭도 부상에서 벗어나 시범경기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타선에서 특별한 부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그나마 위안이다.

긴 스프링캠프를 끝내고 돌아온 KIA 선수단은 14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012시즌을 위한 고삐를 당기게 된다.

15·16일 훈련을 갖는 선수단은 17일 SK와 시범경기를 위해 인천으로 이동한다. 캠프 생존 경쟁에 이은 1군 진입을 위한 또 다른 경쟁이 KIA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부정행위자 영구 퇴출

### 한국야구위원회

경기조작 파문을 겪은 프로야구가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9개 구단 이사회를 연 뒤 긍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KBO 이사회는 그라운드에서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처벌 감면제 도입 ▲예방 교육 및 자정 활동 강화 등 4개 항목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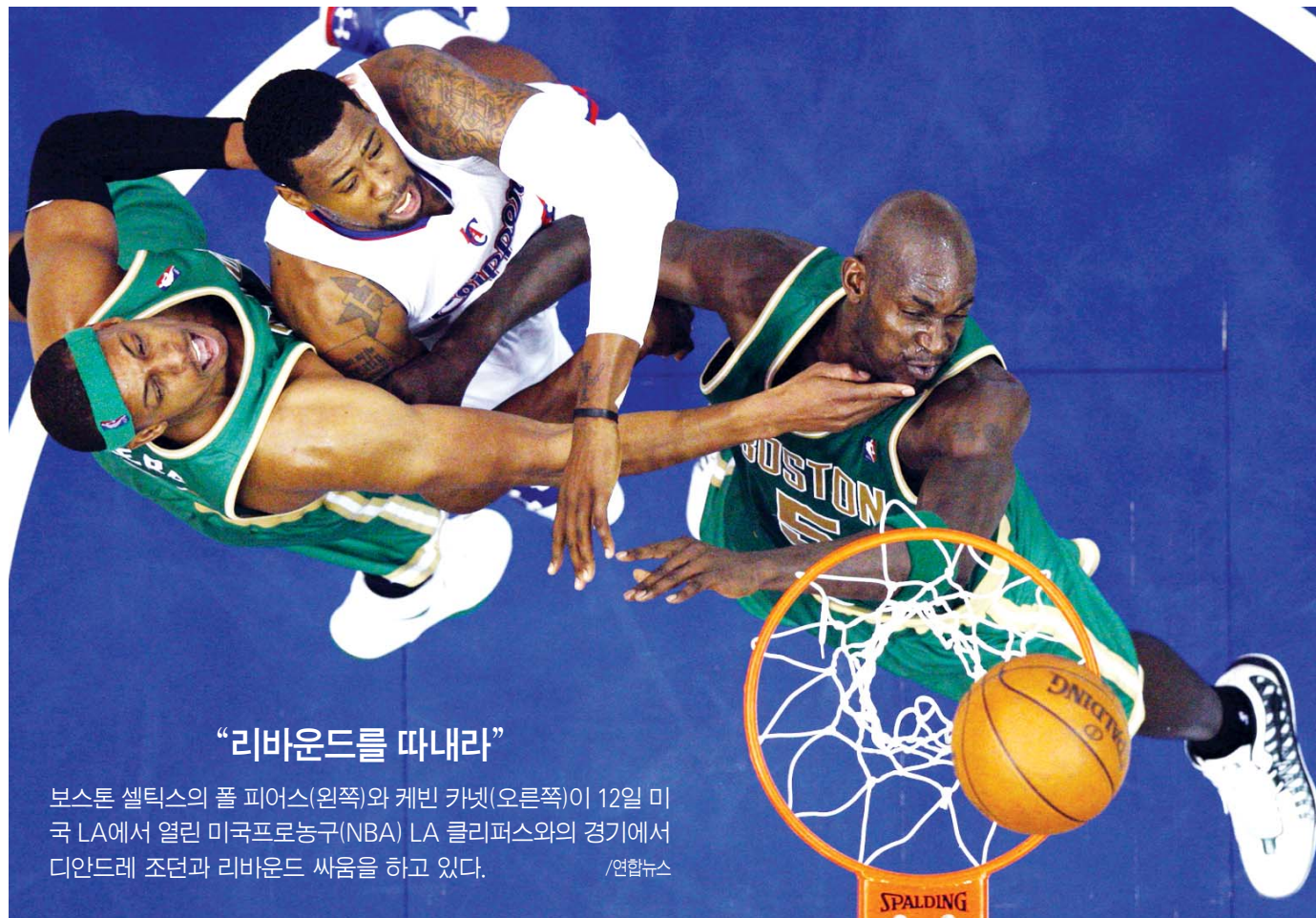
우선 경기조작 등 부정행위 가담자는 영구 퇴출하고 임직원이 개입된 구단은 리그에서 퇴출하는 처벌규정을 담은 규약을 신설했다.

또 KBO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센터를 신설해 전 경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양형 감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감면제를 마련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역 사법기관 등을 통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KBO는 이사회를 마친 뒤 구본능 총재와 9개 구단 사장단, 프로야구선수협회의 박재홍 회장, 박충식 사무총장이 합동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구 총재는 "설마 설마 했던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스럽다"며 "KBO와 구단, 선수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리바운드를 따내라"

보스턴 셀틱스의 폴 피어스(왼쪽)와 케빈 카넷(오른쪽)이 12일 미국 LA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디안드레 조던과 리바운드 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런던올림픽 모든 참가국 여성선수 출전"

### IOC, 사우디아 협의 중

2012 런던 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모든 참가국이 여성 선수를 출전시킨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런던올림픽에 여성 선

수를 내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게 위원장은 IOC는 사우디아와 구체적인 여성 선수 출전 종목과 선수 수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목별 예산이나 출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IOC는 사우디아 여성 선수들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제경기연맹과 함께 와일드카드 형식의 특별 초청선수로 런던올림픽 출전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게 위원장은 최종 결정이 4~6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카타르, 브루나이와 함께 여성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은 세 나라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 런던올림픽 주요 경기 방송 3사 돌아가며 중계

### KBS MBC SBS 합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7월 개막하는 런던올림픽의 주요 경기를 순차적으로 방송하기로 했다.

방송 3사 사장단

은 13일 런던올림픽 합동방송의 구체적인 방법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방송 3사는 대회기간 주요 12개 종목을 중복편성 없이 순차적으로 방송하며 대한민국 대표팀과 선수가 출전하는 결승전, 3·4위전, 준결승, 시상식 등은 2개 방송사가 생방송하고 나머지 1개 방송사가 시차를 두고 지연 방송하기로 했다.

해당 종목은 수영, 양궁, 배드민턴, 복싱, 펜싱, 체조, 유도, 사격, 탁구, 태권도, 역도,

레슬링이다. 3사는 사별 종목 배정을 23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송 3사는 "이번 합의로 중복편성의 폐해를 막고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과 채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권료 3100만달러는 KBS가 40%, MBC와 SBS가 30%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 현지로 파견되는 인력은 KBS 160명, MBC와 SBS가 각각 120명 등 약 400명이다.

방송 3사는 지난해 7월 4일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CS)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기의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해 합동방송을 하기로 합의했다.

런던올림픽은 KS구상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합동방송 대상 종합대회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